

조직 속 개인 위한 직장인 실용가이드

예의범절 인간관계 등 가르치는 책 독자들 인기끌어...신입사원 위한 것도

최근에 와서 예의범절을 중히 여기던 풍조가 사라져가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현재 서점의 한 코너를 차지할 정도로 그득히 쌓여있는 50여종의 예의범절교양서는 오늘의 세태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범절은 회사라는 조직사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직장생활의 기본은 인간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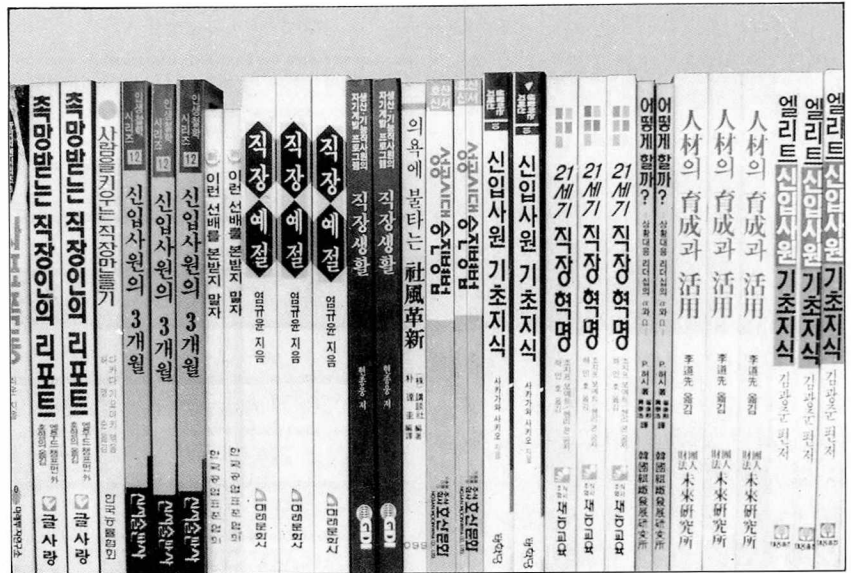
우선 일반적인 직장예절을 기술한 책을 보면, 「직장예절」(염규윤, 미래문화사) 「직장인의 예절」(김진태, 현대미디어) 「직장생활 완전정복」(조완옥, 혜진서관) 등이 있는데 이 책들이 강조하는 예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예를들자면 명함은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으며 항상 두 손을 포개야 한다는 것이나, 업무전화는 건쪽에서 먼저 끊는다는 예의는 이제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을 자칫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가끔 잊는 직장인들을 위한 예절교양도서가 독자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신입사원, 여성사원을 위한 예절서의 대략을 살펴본다.

상식적인 직장예절과 함께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강조한 도서도 적지 않다.

명함은 오른손으로 주고 왼손으로 받으며 항상 두 손을 포개야 한다는 것이나, 업무전화는 건쪽에서 먼저 끊는다는 예의는 이제 상식이다. 그러나 상식을 자칫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고 해도 가끔 잊는 직장인들을 위한 예절교양도서가 독자들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신입사원, 여성사원을 위한 예절서의 대략을 살펴본다.

「직장의 인간관계」(권오현, 중앙경제사) 「사람들과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C.N. 파킨슨, 생활지혜사) 「촉망받는 직장인의 리포트」(엘우드 챔프먼, 글사랑) 등이 그것으로 직장생활의 기본은 인간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팀워크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타인의 나쁜점을 들추어 내는 행위를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상사·선후배·거래처 고객 등을 대하는 태도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회사의 동료 등과 생기는 마찰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저술도 내용의 한 부분이며 특별히 이런 사례를 모아서 엮은 「이런땐 어떻게」(이명환, 21세기북스) 「직장인의 트러블 탈출」(삶과꿈) 「직장인을 위한 인간관계 사례연구」(이상 김재환,



서점서점에 50여종의 예의범절교양서가 나와 있다. 사진은 그중의 일부.

지방시대사) 등은 인간관계상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갈등을 상담해주고 있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뚫고 들어가는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 '신입사원'이라 불리는 그들의 직장생활은 낯설기 때문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1차집단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2차집단에서의 적응은 더 어렵다. 이들을 위한 직장예절서로는 「신입사원 ABC」(정승일, 삶과꿈) 「신입사원의 3개월」(스스키 겐지, 신서) 「신입사원 기초지식」(사카가와 사키오, 태학당) 등이 있어 신입사원의 회사적응을 돕고 있다.

신입사원 「회사사정 빨리 파악하라」

위의 책에서 우선 강조하는 점은 "회사의 사정을 빨리 파악하라"는 것. 특히 「신입사원

의 3개월」은 입사후 3개월간에 신입사원이 취해야 할 도리를 정리해주고 있다.

이외에 직장여성들의 예절교양서로 「사랑받는 직장여성」(조동춘, 언어문화사) 「직장여성의 매너와 에티켓」(맹태균, 문조사) 「센스있는 직장여성 에티켓 ABC」(신양순, 태웅)와 이외에 많은 책이 있어 직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과 같은 도서는 물론 독자대상이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인 예절이 회사의 분위기도 좌우한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네"라고 하는 소박한 마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겸허한 마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감사하는 마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봉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직장생활도 즐거울 것이라는 결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성수 기자

세익스피어의 인간이해

윤정은 지음 / 1993 / 신국판 / 215쪽 / 6,000원

세익스피어의 비극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사랑, 명예, 혹은 권세의 욕망에서 일어나는 남녀의 갈등을 '사랑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각 작품에 나타난 사랑의 성격, 발전과정, 의미와 결말 등을 검토하여 인간의 존재양식을 파악하고 있다.

전후 영·미 소설의 이해

나영균 지음 / 1993 / 신국판 / 236쪽 / 6,000원

인류사에 필연적으로 큰 발자취를 남긴 제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영·미 대표적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리얼리즘의 탐구로 실험과 진통을 교차하는 변화의 시대성과 작품기법, 작품성의 흐름을 파악하여 사회와 문학의 관련성을 찾는다.

문학의 해석론

에릭 D. 허쉬 지음 / 김화자 옮김 / 1988 / 30절판 / 234쪽 / 3,200원

후기 구조주의 내지 해체 해석주의의 퇴폐적 경향과 회의주의적 경향을 공격하면서 문학해석이 어떻게 인식과 관련을 갖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후기 낭만의 독선주의와 회의주의로부터 벗어나 문학교육과 비평이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결정론과 문학

모리스 라킨 지음 / 전수용 옮김 / 1993 / 30절판 / 386쪽 / 7,000원

문학의 환경을 이루는 제반 조건들과 상호관련 속에서 19세기 사실주의 문학을 파악한 비평서로서, 특히 독일·영국·불란서·러시아 등 각국의 사실주의를 섭렵함으로써 현대문학도들의 시각에 결여되기 쉬운 전체적인 조망을 되찾아 준다.